

포사격장 폐쇄하라 住民 집단반발

신형장비 도입 소음진동 증폭 주민생활권 침해

“광광포사격 더 이상 못하겠다.”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주민 200여명은 포사격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때문에 못살겠다며 지난 15일 국도 47호선에서 원평사격장 앞까지 시위를 벌였다.

연곡리 주민들로 구성된 이들 시위대는 “수십년간 포사격 훈련으로 귀를 찢는 듯한 소음과 굉음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권이 크게 위협받아 왔다”면서 보상차원의 대책이 아닌 원평사격장 폐쇄, 이전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시위대는 군부대 앞까지 행진을 하면서 “광광포사격 더 이상 못하겠다, 한미 FTA 포사격 우리농촌 두 번 죽이지 마라, 후배들 공부하게 포사격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주민들은 배포한 호소문에서 “이동면 연곡리 일대 주민들은 30년 동안 여러가지 힘들고 불편한 점을 감수해 왔다”고 강조하고 “불법탄으로 인한 인명사상, 소음, 진동, 가축피해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현 원평포사격 반대대책위원장장은 “군부대측과 수차례에 걸쳐 포사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논의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주민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포사격장이 이전하거나 폐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동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원평사격장 이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군부대 이전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2일 주민들은 군부대가 훈련을 더 미루기 어렵다며 전자 사격훈련을 재개하러 하자 주민들이 진입로를 봉쇄하고 나섰다.

연곡리 사격장 반대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부터 트랙터 9대로 폭 7m 가량의 사격장 진입로를 2중3중으로 막았다. 연곡리 주민들과 군 부대의 갈등은 지난 6월 사격장 확장 계획이 알려지면서 시작했다. 주민들은 당시 사격장이 마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주민 200여명은 포사격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때문에 못살겠다며 지난 15일 국도 47호선에서 원평사격장 앞까지 시위를 벌였다. 이들 주민들은 수십년간 포사격 훈련으로 귀를 찢는 듯한 소음과 굉음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권이 크게 위협받아 왔다고 주장하고 보상차원의 대책이 아닌 원평사격장 폐쇄, 이전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방향으로 1km 가량 더 내려오자 “군이 사격장을 확장한다”며 연곡 1-5리 200여 가구 600여 명이 뭉쳐 반대추진위를 구성하고 집단 반발하기 시작했다.

반대추진위는 마을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전차의 포 사격으로 인한 소음과 전자 이동에 따른 분진 등으로 말로 다하지 못할 피해를 보고 있는데 마을 쪽으로 더 내려오는 것은 마을을 떠나라는 것과 같다”면서 사격장 이전을 요구했다.

군부대측은 “장비가 현대화되면서 전자에서 사용하는 포가 105mm에서 120mm로 바뀌면서 사거리가 500m 가량 늘어 사격장

길이를 늘릴 수 밖에 없으며 전체 훈련장 면적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주민 반발을 우려해 후반기 사격훈련을 미뤄왔는데, 더 이상 연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급한 훈련을 시작하려 했으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피해에 대한 예방이나 보상 차원이 아닌 사격장 폐쇄 또는 이전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추진위 김병현 위원장은 “30년 이상 기본적인 생활권을 위협받아 온 만큼 이전 보상 차원의 대책이 아닌 폐쇄, 이전 등

근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사격장을 끝까지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평훈련장은 1970년대말 이동면 연곡리 일대 165만㎡에 조성된 이후 30여년간 전자 사격 훈련장으로 활용돼 왔으며, 주변 연곡1-5리 주민들이 분진과 소음 피해에 따른 해결책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해 왔다.

주민들은 진정서를 해당 군부대는 물론 국방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회 등에 보내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진정서에서 주민들은 “연곡5리 마을과 인접한 원평 전자사

격장을 1차(1993년 500m), 2차(1998년 500m) 탱크 사격장 확장 공사로 수십년간 극심한 피해를 보고있다”면서 “지금까지 수십차례 진정과 탄원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기는 커녕 그 피해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도시민의 조금마한 불편에도 직접 정부가 나서 수십억원을 투자하면서 소음과 진동 등 주민들의 공포와 불안은 주민들의 뒤편으로만 남겨주는 정부와 군당국의 처사에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지금 포천은 이렇다 ㉔
 도비지원 도로개설 어떻게 되나

3년째 도비보조 없어 사업 차질

국도 43호선 교통난 당분간 지속될 듯

포천시가 도비보조로 추진중이거나 추진하려고 했던 도로확포장 사업들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 관계자에 의하면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이나 확포장은 3년째 도비지원이 전혀 없다”면서 “2008년 경기도 예산에도 포천시가 요구한 도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천시가 경기도에 2008년 도로부문 사업비로 요청한 것은 모두 12건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예산확보 미비 등의 요인을 들어 포천시 뿐만 아니라 31개 시군 전체에 도비지원 도로확포장 사업비를 전혀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인 명품신도시 건설과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사업 등에 예산을 집중시키고 있어 도로부문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

이와 달리 경기도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포천지역 지방도로 개설 혹은 확포장 사업에는 일부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비지원 도로사업
 포천시가 도비를 보조받아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 사업은 모두 11건이다.

포천중문의대-동고동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사업진척도 35%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8년 7월 준공 예정이지만 도비보조가 없어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신읍사거리-천주교간 도로개설사업은 6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총 연장 430m 가운데 올 연말까지 280m 구간은 완공할 계획이다. 그 러나 잔여구간 150m 구간에 대한 보상비와 공사비가 없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송우-무봉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보상을 30%(8월말 현재)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8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국도 43호선 우회도로(동고동-선단동) 개설공사의 경우 올 5월 요지보상에 착수해 보상을 33%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당초 국도 43호선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교통난을 해소하려는 시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토지보상을 30%의 포천고교-호병천간 도로개설공사, 보 상을 10%의 화랑이발관-포천동사역소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인 8사단-정안교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을 73%의 군도 19호선(화현면 지현리-화현리) 위

협도로 개량공사, 실시설계중인 깊이울-삼십곡간 도로확포장공사와 화현4리 도로확포장공사, 포천고-극동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등에 대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다.

이같이 도비지원 도로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도로개설이 지연됨에 따라 국도 43호선 교통난은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게됐다. 또한 토지보상비 지원으로 지역주민 불편가중은 물론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보상비 상승 등이 우려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도비보조사업비가 배정되지 않아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있다”면서 “도비보조가 없을 경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들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도 43호선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축석고개부터 영북면 자일리간 44.5km간 교통혼잡구간 개선사업비 70억원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교통정체가 심한 축석고개와 하승우리 일대, 대진대 부근 등 3개 지점에 대해서는 교차로 기하구조개선, 첨단신호제어시스템 구축 등으로 차량들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혼합구간 개선사업은 총 70억원으로 이중 도비가 45억5천만원이다. 혼합구간 개선사업은 현재 일부 구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포천-의정부간 차량속도가 16%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화현면 대기행렬 차량감소, 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도로 개설사업
 경기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천지역 도로개설 사업은 모두 7개 구간이다.

국도 43호선 교통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승우리-가산 마산간 4.5km 4차로 확포장 공사는 2004년 1월에 시작해 2008년 토지보상을 마치고 2010년말에 완공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 구간 사업비로 내년 예산에 90억원을 반영했다.

이밖에 광안-신북간 도로개설에 8억5천만원, 광안-마산간 도로개설 130억원, 신평-삼곡간 도로개설 27억1천만원, 운현-탄동간 도로사업 70억원, 고모-직동간 도로사업 20억원 등이 배정됐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작은 거인 산악회 12주년 기념산행

버스타는 곳

- 07시 00분 관인면 농협앞 출발
- 07시 10분 영북면 축협앞 출발
- 07시 20분 영중면 농협앞 출발, 금주상회 경유
- 07시 00분 도평리 중점 출발, 이동파출소 경유
- 07시 20분 일동 필마트 출발, 길명리 주유소 경유
- 07시 10분 화현저서 출발, 지현학교, 금주4리 경유
- 07시 30분 만세교주유소 출발, 신북면사무소 경유
- 07시 10분 오가리주유소 출발, 하십곡우체국 경유
- 07시 00분 수목원주유소 출발, 축석휴게소 경유
- 07시 30분 송우리 우리병원 출발, 광명여단 경유
- 07시 30분 대진대 건너 출발, 한내주유소 경유
- 07시 10분 내촌면 출발, 성원주유소, 근내면 경유
- 07시 20분 가산면 농협 출발, 근내면 경유
- 08시 00분 포천고등학교 후문 백자아파트앞 모두모여 출발

일시 : 2007년 12월 9일(둘째주 일요일)

장소 : 계룡산(관음봉 816m)

회비 : 15,000원 본인이 버스탑승할 읍·면·동 구좌에 11월30일까지 입금하시고
 입금표를 가지고 오셔야 탑승이 가능함(입금표 없는 분은 가실 수 없음)

매일 둘째주 일요일에 출발하는

작은 거인 산악회

회장 이광호 · 총무 윤춘근 016-345-6293

입금할 계좌번호

면	은행	계좌번호
포천동	포천농협	225047-56-074400
일동면	일동농협	225058-51-157621
이동면	일동농협	225058-51-157617
청수면	영중농협	225020-51-002068
영중면	영중농협	225025-51-042524
영북면	영북농협	225069-51-197652
소흘읍	소흘농협	225036-51-173811
화현면	일동농협	225058-51-157636
만세교쪽	포천농협	225047-56-074381
가산면	가산농협	225014-51-064117
관인면	관인농협	225070-51-057532
근내면	포천농협	225047-56-074338
선단동	포천농협	225047-56-074395
직동리쪽	소흘농협	225036-51-173825
내촌면	가산농협	225014-56-074936
여흥동	포천농협	225047-56-074361
금주리	영중농협	225025-51-042539
삼곡리	포천농협	225047-56-074376
중리	관인농협	225070-51-057547
기타	포천농협	225047-56-074342